

혁신도시 기관 '위드 코로나' 사회적가치 경영 눈길

한전·농어촌공사 등 기재부 우수사례 선정...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주민친화 문화행사 등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이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확산 포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혁신도시에 기업투자를 유치하거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역 농산물 판로를 넓히고 주민친화적 문화행사를 진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25일 나주 혁신도시 4개 기관은 한전KDN 빛가람홀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확산 포럼'에서 사회적가치 확산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포럼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과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구 명지대 교수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방안' 특강과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한전은 1단계 유치기업 목표를 초과 달성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우수사례로 들었다.

한전은 나주 혁신도시에 동지를 트리 이전인 지난 2014년 1월부터 에너지밸리 구상을 시작했다. 에너지밸리 구역은 혁신도시(730만㎡)를 중심으로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단(93만㎡) ▲광주 도시첨단국가산단(48만㎡) ▲나주 신도일반산단(29만

㎡) ▲나주 혁신산단(178만㎡)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2025년 2월까지 지방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나주 혁신산단의 분양율은 82%에 달한다.

에너지밸리에는 지난 2015년 3월 보성파워텍㈜이 '1호 기업'으로 투자협약을 맺은 뒤 올해까지 501개사를 유치했다. 2020년까지 1단계 유치 목표는 500개사였다. 이들 유치기업은 2조1000억원 투자와 1만1158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올렸다.

한전은 금융지원, 인력양성, 지역 제품 우선 구매 등 에너지밸리 조성에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한전은 내년 8월까지 2000억원을 출연해 유치협약 기업에 대출이자 지원을 한다. 기업당 최대 지원 규모는 20억원으로, 평균 감면금리는 2.57% 정도다. 지난 달까지 123개사가 1540억원 상당 지원을 받았다.

또 515억원을 출자해 만든 에너지밸리 투자펀드는 880억원 상당이 조성됐다. 올해 10월 기준 43개사에 796억원 상당 투자가 이뤄졌다.

한전은 에너지밸리 기업을 위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며 광주·전남지역 대학 9곳 등과 협력해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확산' 우수사례
- 한전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5년간 501개사 유치 '목표 초과 달성' 2조2000억 투자·1만1158명 일자리 창출 효과 2000억 출연 기업 대출이자 지원
- 농어촌공사 '농촌체험꾸러미' 전국 200개 어린이집 등 구입비용 80% 지원
- 사학연금공단 '코로나의료진 지원' 3500만원 상당 나주배출 전달 주민·소상공인 교감 문화행사·청소년 장학금
- 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공모' 선정작 '웨이브'에서 무료 상영

1718명의 고교·대학생 인재를 키워냈다.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제작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직무향상 교육 수요자는 865명이다. 한전이 지역 중소기업에 우선구매한 제품은 올해 1017억원을 포함해 4389억원 상당에 이른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체험꾸러미'를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했다. 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농촌융복합

산업 매출이 지난해보다 48% 감소한 점에 착안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공사는 전국 200개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농촌체험꾸러미' 구입비용의 80%를 지원했다. 총 지원규모는 2억원으로, 전국 1813개 농촌융복합산업경영체와 1137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판로를 넓히고자 했다.

농어촌공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이번 사업예산을 내년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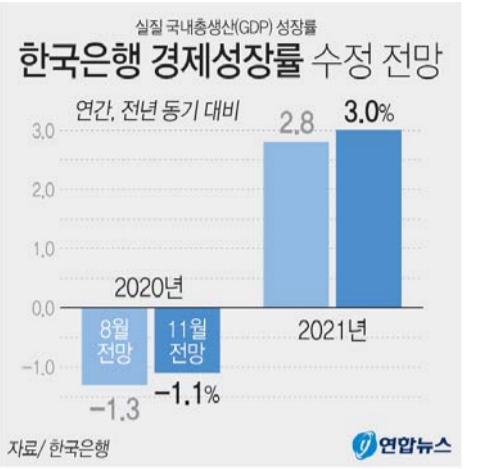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나주 배로 만든 배즙 3500만원 상당을 구매해 코로나19 의료진 8만 3000여 명에 전달했다. 예산 1000만원을 들여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과 지역 소상공인이 교감할 수 있는 '빛가람 도란도란 클래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5점 만점에 4.99점을 주며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공단 특색을 살려 나주 24개교 학생 2630명에 안전우산을 배부해 교통사고를 예방했고, 저소득 재능아동 4명을 선발해 3년 동안 총 440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확산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콘텐츠 공모에 나섰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분 안팎 영상들은 국내 1000만명 가입자를 지닌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에서 무료 상영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25.91 (+24.37)
↑ 코스닥	874.53 (+9.41)
↑ 금리(국고채 3년)	0.981 (+0.010)
↓ 환율(USD)	1104.60 (-4.30)



0.5% 기준금리 유지 3.0% 경제성장률 상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로 유지하고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26일 결정했다.

또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 -1.1%, 3%로 수정했다. 3분기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1.9%로 예상보다 큰 폭으로 반등하자 이를 반영해 8월 전망치(-1.3%·2.8%)보다 0.2%포인트씩 높여 잡았다.

한은 측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금융안정에 유익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도 낮은 만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한은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8월27일 전망치(-1.3%)보다 0.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코로나19 타격을 반영해 외환 위기(1998년 -5.1%) 이후 22년 만의 첫 '마이너스' 성장(-0.2%)을 경고했고, 이후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지자 3개월 만에 성장률 눈높이를 -1.3%로 더 크게 낮춘 바 있다.

하지만 1분기(-1.3%)와 2분기(-3.2%) 연속 뒷걸음치던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이 3분기 1.9%로 뛰자 한은도 올해 성장률을 소폭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경제성장률은 2.5%로 내다봤다. 한은은 취업자 수가 올해는 20만명 감소한 뒤 내년과 2022년 중 각각 13만명, 21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5%에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0%, 1.5%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봤다.

전남 청년들 '종갓돈' 생겼다

광주은행-전남도 '디딤돌 통장' 만기...819명 755만원씩 수령

광주은행은 전남도와 함께 추진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이 처음으로 만기가 돼 적립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은 지역 청년의 미래준비를 위해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3년 동안 납입하면 전남도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광주은행이 공시한 금리 이외에 우대금리(1.1%)를 더해 지급한다.

이번 만기 적립금은 가입자 819명이 이자 25만 원을 포함해 모두 755만원씩 받았다. 청년이 적립한 360만원에 전남도 지원 370만원, 이자 25만원

이 붙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7년 10월, 전남도와 협약을 해 계좌개설과 납입·해지, 만기 적립금 지급 등의 업무를 진행해왔다.

이춘우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 적립금이 청년들의 취·창업자금, 결혼자금,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종갓돈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남·광주 대표은행으로서 금융서비스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는 등 지역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우(오른쪽 세번째)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26일 전남도청에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만기 청년에 적립금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일자리' 2030 줄고 4060 늘고

2분기 임금근로 2030, 16만4000개 감소...4060, 37만5000개 증가

올해 2분기 30대 이하 청년 세대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16만4000개 감소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1889만6000개로, 1년 전보다 21만1000개(1.1%) 증가했다.

증가 폭이 2018년 1분기 이후 가장 작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일자리가 1년 전보다 8만2000개(-2.5%) 감소했고, 30대 일자리도 8만2000개(-1.9%) 줄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두 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감소 폭 역시 1분기(-1만3000개)보다 크게 확대됐다.

반면 60대 이상의 임금 일자리는 22만5000개(9.7%), 50대 일자리는 12만8000개(3.1%) 각각 증가했다. 40대 일자리도 2만2000개(0.5%) 늘었다.

인력 공급업이나 여행 관련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는 사업임대 일자리도 2만9000개 줄었고, 숙박·음식점업은 2만6000개 감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빚 못갚는 서민' 늘어난다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7' 변제율 4%까지 올라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을 서민금융진흥원이 채무자 대신 변제한 비율이 4%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흥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햇살론17의 대위 변제율은 4.2%다.

대위 변제율은 전체 햇살론17 대출 중에서 은행이 진흥원에 요청한 대위 변제액의 비율이다.

햇살론17은 지난해 9월 출시돼 올해 2월(0.02%)부터 대위 변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위 변제율은 0.2%(3월)→0.6%(4월)→0.8%(5월)→1.3%(6월)→1.8%(7월)→2.4%(8월)→3.4%(9월) 등 꾸준히 올랐다.

햇살론17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금리는 연 17.9%다. 지난 달까지 햇살론17 총 신청 건수는 17만990건, 지원 금액은 총 1조1552억원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